

우리반 명선이

지금부터 우리 반 명선이를 소개해줄게요

친구들 얼굴을 만드는 미술시간

명선이라도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들 얼굴은 아니에요

명선이는

명선이가 좋아하는 공룡을 만듭니다

솔직히 조금은 서운하기도 해요

난 이렇게 명선이 얼굴을 만들어주는데 말이죠

사실 명선이는

내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명선이란은 2학년 때부터 알아서

내 이름은 잘 몰라도

우린 친하거든요

(인터뷰- 2학년때부터 친해져서 같이 도서관 쪽으로 일부러 돌아서 집에 가고 그래요
명선이가 곤충을 좋아해서 곤충보러...)

(복도 밖으로 나가서 혼자 노는 명선이)

혼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명선이는

가끔 우리가 귀찮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우린 명선이가 좋아요

(명선이 주변에 모여드는 친구들)

(명선이가 익룡을 가지고 혼자 복도에서 노는 모습)

**왜냐면 명선이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이 같거든요
명선이가 보는 창문 밖으로는 익룡이 날아다니고요,
어쩔 땐 개미들의 속삭임도 전해줍니다**

r(명선이 영상에 친구들 음성만-명선이한테 배우는 것 도 많아요 공룡이름도 많이알고요,
곤충들도 많이 알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소중한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명선이가 만드는 공룡은 진짜 같아요

진짜, 레알!

짧은 앞다리

긴 꼬리

날카로운 이빨

만화에 나오는 공룡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명선아 이게 머야? - 공룡이름 말하는 씬)

어려운 이름도 척척!

명선이는 다 알아요

그런데 명선이에겐 장애가 있대요

(인터뷰-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해요 잠깐 이라는 말을 자주하고...)

그래서 명선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기다려줘야 해요

명선이에게 대답을 들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잠깐! 이라고 외칠 땐 더 천천히 행동해야 해요

수업시간에 갑자기 밖으로 나갈 때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올거예요

방해되고, 귀찮아 보인다고요?

(방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방해는 안되요/ 까지만 쓰고)

아니요, 방해되고 귀찮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같이 지내다 보면요!

우린 명선이에게

더 잘해주지 않고

돌봐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친구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자막)

친구는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요

M/V

(유비에는 아이들하고 섞여노는 다른 수업장면,
엄마 인터뷰 -조금 더 기다려달라)

**초등학생 친구들이 말하는
장애인 친구를 대하는 방법**

- 1. 가까이에서 함께 한다**
- 2. 무엇을 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대한다**
- 3. 싫어하는 행동을 조심한다**
- 4.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준다**
- 5. 혼자만의 세계를 인정한다**

=====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1) 자기표현을 어려워하는 친구에겐

천천히 말하기,
손짓 몸짓으로 대화하기,
가능한 쉽고 짧은 말로 설명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2) 보거나 듣고 말하는 것이 불편한 친구에겐

손을 잡고 알려주기,
커다란 글씨나 읽을 수 있는 도구를 쓰기,
입모양을 또박또박 성우처럼 천천히 말해보기

3) 걸거나 움직이는 게 불편한 친구에겐

관심 갖고 지켜보기,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방법 찾기,
방해하는 물건 치워주기,
휠체어가 불편한 장소 미리 알려주기,

외국인 친구가 전학 왔다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서로 통하는 단어들

조금씩 늘려가면서 친해지면 되니까요.

초등학생이 말하는
장애인 친구를 대하는 방법

"우리반 명선이"

촬영 협조 : 본원초등학교
나레이션 : 이규창(월곡초6)
구성 : 박성은

기획 : 안산시 지역복지협의회
제작 : 복지영상